2017 경기문화예술교육
틈새 프로젝트 지원사업 총평

심사위원 서 명 함은권 (인)

서 명 정은영 (인)

서 명 유다원 (인)

2017 경기문화예술교육 '틈새 프로젝트' 지원사업 심사평

'경기문화예술교육 틈새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본격적인 지원사업 이전에 또는 지원사업과 지원사업 사이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예비적으로 준비하거나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활동 동력과 모색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많은 지원사업들이 일정한 형식과 규격을 갖춘 완료된 형태의 실행까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 프로젝트를 변형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실험적 모색을 해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한 '틈새' 지원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지원자가 신청서를 낸 탓에 예상 이상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총 47개 팀이 최종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에서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창조성, 공공성, 확장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발전가능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우대 등이었다.

사업에 지원한 팀들은 각기 자신들이 해오던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의 연장선상에서 그 활동을 확장하거나 이어가거나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서를 제출하였다. 연극, 무용, 미술, 도예, 무예, 출판 프로젝트, 청소년을 위한 예술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예술치료,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프로젝트, 융합형 예술프로젝트 등 실로 다양한 영역이 망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자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지원 프로젝트들의 대체적인 성격은 종래의 활동을 확장하고 변형시키는 새로운 모색이라기보다는 기존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형식은 그대로 답습한 채 프로젝트 시행의 대상만을 단순하게 바꾼 사례가 많았다. 그 경우는 대부분 창조적 아이디어가 가미되었다기보다는 사업 지원을 위한 서류 가공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여지가 많았다.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 성격의 실험이나 모색을 위한 기획이라기보다는 종래 해오던 공연이나 퍼포먼스를 위한 공연비 마련 차원으로 기획서를 쓴 곳도 적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미리 교부받은 지원서들을 수일 전부터 충분하고 꼼꼼하게 1차 서류 검토한 후에 비교적 자세한 당일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서에서 미진했던 이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집중력 있게 검토 했다. 심사위원들은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틈새'라는 프로젝트 취지에 부합하며 참신성과 공공성을 지닌 프로젝트의 예비기획 성격의 지원자들을 편견 없이 발굴하려고 애썼다. 여기에는 차후에 공공성을 갖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확장가능성을 갖고 있거나 그 저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었으며 새로운 도전에도 힘을 실어주었다. 긴 논의 끝에 전원합의를 통해 여섯 팀을 선정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선정된 팀들에는 축하의 말씀을,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과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